



부안 진서면, 마실축제 부스 체험비 장학금 기탁

부안군 진서면사무소 직원들이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기간에 운영한 '바다를 품은 제습제' 부스 체험 활동비를 모아 지난5일 부안군 근농인체육성재단을 찾아 장학금 6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운영한 축제 부스는 진서면 천일염에 색을 입혀 아가자기 한 병에 담아 소장할 수 있는 천연 제습제 만들기 체험, 진서면 바다를 상징하는 특산물에 고리를 던져 보물을 획득하는 보물 던지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김연태 면장은 부스 체험 활동비를 뜻있는 일에 가치 있게 사용하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연태 면장은 "지역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격려의 응원을 보내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진서면 직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진정읍시청지점, 취약계층에 여성위생용품 전달

전북은행 정읍시청지점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전북은행 정읍시청지점은 지난 16일 여성을 위한 위생용품 100박스(300만원 상당)를 정읍시청에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이번 기탁은 전북은행에서 매년 진행하는 '2025 딸에게 보내는 선물'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생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김태식 지점장은 "지역 내 여성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 청소년의 달 청소년 선도·보호에 힘써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는 지난 15일 고창 터미널 및 중앙로 일대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은 여성청소년계 계장·학교전담경찰관 및 고창교육지원청 패트롤팀 등 총 6명이 참여하여 중앙로 일대에서 학교폭력 및 사이버도박 예방 전단 및 물품을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등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또한, 인근 상가 편의점·PC방 등 청소년 밀집지역의 유해 환경을 점검하며 업주에게는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와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지 않도록 신변증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시-김제시, 고향사랑 상호 교차기부 기탁식

김제시 농·축협과 전주시 농·축협은 16일 김제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기부 기탁식'을 개최하고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하양진 농협 전주시지부장, 이우광 전주시 조합운영협의회회장(북전주농협 조합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김유현 농협 김제시지부장, 최승문 김제시조합운영협의회회장(금만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번 교차기부는 전주시 농·축협과 김제시 농·축협 임직원 4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4,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김제시와 전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지역 간 온정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부에 참여한 농·축협은 농협 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를 비롯하여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 전주완예농협 등 5개 농·축협 임직원이 참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힘!”

고창군, 2025년 전북자치도민 양대체전 조직위원회 발대식 개최

고창군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재호관소리공원에서 양대체전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위원장으로, 도·군의원,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장, 문화예술 및 체육계를 대표하는 60명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체전 홍보, 시민 참여 유도, 교통 안전, 자원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선 참석자 전원이 체전 슬로건인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힘!'을 제창하는 성공 기원 퍼포먼스를 펼쳐 양대체전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앞서 고창군은 도민체전 상징물(임블럼, 마스크트, 포스터, 슬로건)을 확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달말까지 고창군자원봉사센터에선 도민체

전 240명과 장애인체전 8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에서 열리는 양대체전의 만큼, 모든 군민의 역량을 모아 전북 특별자치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과 감동의 스포츠 축제를 만들어가자"며,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환경을 준비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체전을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조직위원회는 향후 산하 집행기구를 중심으로 경기 운영, 숙박, 교통 문화공연 등 체계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2025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는 2025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창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약 1만여 명의 선수들과 관람객이 참여해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쳐며 도민 화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기자

‘향상된 금융서비스 제공’ ... 진안농협 주천지점 준공식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종)은 지난 15일 주천지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읍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군의원, 박영훈 농협중앙회 감사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농협 조합장, 기관단체장,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천지점은 2,816㎡(852평) 부지에 금융점포와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농산물집하장, 창고 등이 신축되어 one-stop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인과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금융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한다.

김문종 조합장은 "진안농협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천지점 준공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기쁘고, 현대적인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안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학교전담경찰관과 소통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경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직접 겪는 애로사항과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 도내 경찰사에는 총 62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학생 대상 예방교육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등 청소년 보호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전담경찰관들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고, '찾아가는 고민 수거 프로젝트',

'위기청소년 면담가법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시책 제안도 활발히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지원책 마련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제과·제빵 전문봉사단 발대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15일 제과제빵 전문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11명의 봉사자가 제과제빵 전문봉사단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카스테라, 미니파인 등 다양한 제과류 실습교육을 센터 내 정성녀눔 주방에서 함께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전문봉사자로서의 역량도 함께 기웠다. 특히 조별 실습을 통해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도 배우며 봉사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봉사자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면서 내가 만든 빵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종합복지관, 노인 맞춤형봄 자조모임 큰 호응

무주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은 4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노인 맞춤형봄서비스 사회참여 프로그램'인 자조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조모임은 사회참여가 힘든 취약 노인들에게 사회적 고립 예방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이번 모임은 각 읍·면별 10개 모임으로 짜여 총 78명의 참여자가 4회에 걸쳐 자발적인 활동과 기획으로 진행됐다.

더욱이 지역적 특성과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젊은 나와 마주하다', 휴식이 있는 봄날 힐링왕에, 누가 누가 잘하니? 큰 주제를 바탕으로 목곡, 구부미동, 염색, 다육이와 수경식물, 공예 등 다양한 특색 있는 소주제를 계획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교육

남원시는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68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과 16일 두 차례로 나누어 힐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힐링 교육은 민원 응대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심신 재충전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해 마련, 각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근대 문화유산이 풍부한 목포 근대사박물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목포 근대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보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다문화팀은 지난 16일 남원 JB청년회(회장 강태균)의 후원을 받아 남원시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치킨 100마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JB청년회 회원들이 직접 만든 치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으며, JB청년회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년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이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물품 후원, 지역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후원은 그들의 꾸준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양치전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활동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지난 16일, 순창군 양치전 일원에서 꽃잔디 보호를 위한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군지부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꽃잔디 사이에 자라난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아름다운 양치전 경관 유지에 힘썼다. 이번 활동은 봄철 관광 명소인 양치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종철 지부장은 "지난 4월 양치전 꽃길에서 순창군이 주최하고 군지부, 관내 농축협 등이 참여한 제1회 '참두름' 여행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바 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한 것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